

## 海拔 2,300m 高原의 멕시코市街

黃色 黑色人種에 對해 優越感 지녀

### 태권도로 통하는 KOREA

서울醫科大學 產婦人科敎授 醫博 羅 建 榮

浪漫과 情緒의 나라로서 世界의 耳目을 끌고 있는 「멕시코」는 中南美의 異色진 나라이다. 「멕시코」는 美國과 직접 接觸을 하고 있으며 그 面積은 韓半島 全體의 약 10배나 되나 人口는 6千萬이며 赤道에 가까워서 年中 더운 나라이다. 그러나 首都 「멕시코」市는 海拔 2,300m의 高原地帶에 위치하고 있으며 高原中央에 있던 湖수를 돌로 메우고 建築을 하여 現在의 人口 1,300萬의 大都市를 이룩하였다는 점도 본 首都의 특징이다.

그러나 湖수위에 세워진 都市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大規模都市이며 그 施設의 雄大함은 國際水準의 會議, 競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멕시코」는 歷史, 民族, 文化, 生活 風習 등이 독특하므로 世界各國에서 많은 觀光客이 모이며 또 憧憬의 나라로 되어 있는 것이다. 昨年 10月 「멕시코」市에서 國際產婦人科學會가 개최되어 世界各國에서 6千餘名의 產婦人科醫師가 모여 學術發表 및 討論이 있었는데 筆者는 이에 參席할 기회가 있었다. 學會가 개최되었던 장소는 「멕시코」大學校 醫院이었는데 그 規模, 施設이 國際規格이라 큰 불편없이 1주일간의 예정된 學術大會가 進行되었다.

「멕시코」는 더운 地方이므로 天然資源과 地下資源이 풍부하고 人口는 面積에 비하여 적으므로 비교적 水準높은 生活를 하고 있다. 貧富의 차이가 심하다고는 하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보였다. 自動車만 하더라도 全國에 4百萬台, 「멕시코」市內에만 120萬台이고 地方에 있어서도 中農이던 自家用車를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멕시코」市는 地帶가 높기 때문에 朝夕으로는 선선하

여 코트트가 필요하고 日中에는 특히 日射光線下에서는 뜨거우나 空氣는 대단히 신선하여 公害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을 정도이다.

歷史적으로 보면 「멕시코」原住民 「인디안」이 아스테카帝國을 설립하고 古代 마야 文化를 축하였는데 그후 스페인系血이 섞여서 현재 「멕시코」人이라 하면 스페인系에 「인디안」血系가 섞인 것이나 「인디안」系血이 약간 섞인 것이 표준으로 되어 있다. 1521년부터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1811年 獨立되었다. 그러나 1846年 對美戰爭에서 패배하여 많은 영토를 빼앗겼다. 그러나 美國과 接境하고 있기 때문에 最新美國文化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멕시코」人들은 音樂을 즐기며 風流로서 一生을 누리려하고 있기 때문에 每日 每日의 生活에 餘裕가 있어 地上樂園같은 人상을 받으나 節度있고 效率의인 면에서는 아쉬운데가 많다. 그러나 外國, 他民族과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獨自의 으로 처리하려 하고 黃色, 黑色人種에 대하여서는 優越感이 대단히 강하다. 商去來에 있어서도 자기네와 비슷한 開發途上國家와는 交易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므로 韓國과의 商品去來는 적은것 같다.

「멕시코」市內에는 물론 全國의 으로 많은 名勝觀光地가 있어서 觀光事業이 대단히 활발하다. 또 이와 같이 雄大한 施設과 많은 名勝地는 一般觀光客은 물론 國際競技, 國際會議도 손쉬우게 誘致할 수 있어 觀光事業으로서 年實收가 20億 弗을 웃돈다고 한다. 「멕시코」市는 高原地帶中央의 湖수를 메우고 宮殿을 건립하므로써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古代建築들은 雄壯하기는 하나 그 후 地盤이 가라앉으므로 기우려져가는 것

이 도처에서 눈에 띈다. 요지음도 年年히 기우려져 가므로 그 補修工事に 여념이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멕시코」 政府로서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市內 中心部에는 「소카로」大廣場이 있는데 이는 蘇聯의 「크레프린」廣場 다음가는 規模인데 國家의 大行事は 여기서 이뤄진다고 한다. 바로 그 옆에 1600年 完工된 大寺院, 1698年 完工된 宮殿建물이 있는데 한쪽이 많이 기우려져 있으나 政府廳舍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警戒가 嚴重하나 團體觀光客들은 自由로 드나들게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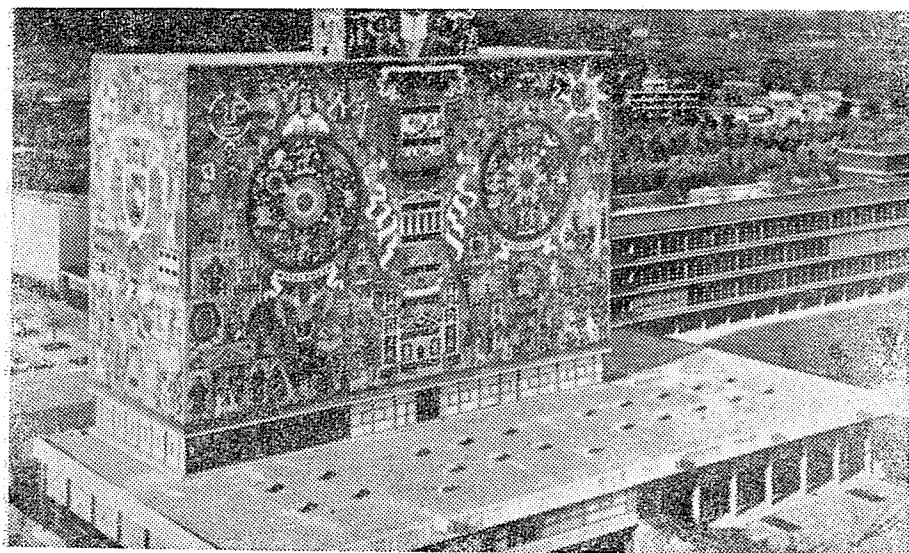
國立藝術劇場도 雄壯한 石造建물이며 「멕시코」의 자랑거리의 하나라고 하며 여기서 公演되는 「바레」는 世界의 水準이며 國賓, 觀光客에는 꼭 한번씩 公開하는데 「멕시코」의 各地方의 歷史, 傳統을 舞蹈과 音樂으로서 엮은 것으로서 특히 衣裳은 豪華燦爛하며 特徵이 있어서 「멕시코」文化를 歷史的으로 窺보는 것같은 印象을 받았다. 이 「바레」는 長長 3시간 계속되는데 「멕시코」人들의 傳統的인 音樂의 素質없이는 도저히 이루워지기 어려울 정도이었다.

또 人類學博物館은 그 規模가 世界的이며 系統的, 歷史的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 本館의 超現代式設計에는 感嘆하지 않을 수 없다.

整頓된 博物館內外는 觀覽客으로 하여금 嚴肅感을 불러이르키며 끝까지 觀覽하게 한다. 博物館의 警備員들은 모다 健壯한 體軀를 가지고 親切하게 대하여주는데 韓國에서 온 손님들에게는 유달리 친절하다. 이 警備員들은 胎拳道를 배우고 있어서 外國人들에게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어 「韓國에서 왔다」고 하면 대단히 반가워 하며 자기들이 배우고 있는 胎拳道의 손짓 발짓을 하며 「얼마나 멋있느냐」고 하며 기뻐한다. 그리고 보니 「멕시코」에서는 韓國胎拳道가 불인 것 같다.

「멕시코」市街 中央에 위치하고 있는 獨立記念牌에는 金製天使가 서있어서 燦爛하게 夕陽에 빛나고 있었다. 「소카로」廣場 가까이 半圓形의 雄大한 記念塔이 있는데 이는 獨立百周年을 記念하기 위하여 1910年 建立된 것으로 石造이나 金色으로 裝飾을 하여 대단히 高尚한 느낌을 받았다.

「멕시코」市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는 약 2000年前 건립되어 太陽과 달에 祭物로서 處女의 心臟을 놓고 祭祀를 지냈다는 「피라미드」가 있다. 太陽을 위한 「피라미드」는 대단히 커서 古代人들의 苦困가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하면 달을 위한 「피라미드」는 그 規模가 훨씬 적어서 부속시설과 같은 印象을 받았다



世界的으로 有名な 모사이크 建物 멕시코大學의 中央圖書館

다. 「에르즈트」의 「피라미드」는 墓地인데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祭壇인 것이다.

또 「멕시코」는 「스페인」과 같이 鬪牛로서 유명하다. 鬪牛는 매년 11월에 5~6만명의 觀客을 모은 廣場에서 거행되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스페인」보다도 觀光客이 많은 「멕시코」의 鬪牛가 더욱 유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季節 이외에는 觀光客을 위하여 小規模의 鬪牛場에서 每週日 曜日 午後 4時半부터 약 2時間에 걸쳐 鬪牛가 있다. 약 1千명의 觀光客들은 「스텐드」를 뵈뵈이 메우고 별러던 鬪牛觀光에 열중한다. 「스페인」에서 수련을 받은 鬪牛師가 검은 野生牛와 싸우게 되는데 땀을 쫓듯 하는 순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워낙 날쌔고 또 鬪牛師간의 「티-크·워-크」가 잘 되어 아슬아슬한 순간을 잘 넘긴다. 鬪牛師가 위험하게 되면 「오-레」·「오-레」하고 환성을 觀客들이 울리는데 「멕시코」인들은 이러한 「스틸」의 순간을 즐기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많은 名勝地, 觀光地가 있으나 「멕시코」大學도 그 규모에 있어서 世界屈指의 大學이다. 「멕시코」市 郊外에 大學都市가 있는데 40年前 開校되었다하며 50萬坪에 많은 建物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建物 하나하나가 모두 特徵있는 設計에 의하여 이룩되었으며 陸上競技場만 하더라도 올림픽競技場을 방불할 정도의 規模이었다. 그리고 그 中央에는 圖書館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壁의 五色燦爛한 모자이크彫刻은 外國人學者들의 耳目을 끌고 있으며 本大學의 世界的인 자랑거리라고 한다.

「멕시코」人들은 生을 즐기려 일보다는 音樂을 일삼고 있다. 저녁때가 되면 길거리에서 「바이올린」, 「기타」 등을 반주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멕시코」특유의 「숨보렐로」라고 하는 쟁이 넓은 모자를 쓰고 노래부르는 사람을 「마리아치」(mariachis)라고 한다. 「마리아치」廣場에 잔뜩모여 여기저기 찾아오는 기쁜일이 있는 사람, 슬픈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노래와 음악으로서 축하 또는 위로하여 주는 光景은 「멕시코」가 아니면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즐거운 저녁시간을 가지며 술은 옥수수로 만든 「테킬라」라는 술을 마신다.

每日 音樂을 일삼으며 人生을 즐기는 生活을 하고 있기 때문에 節度있고 成果있는 일은 되지 않는 것 같다. 게으르며 責任感적고 오늘 못 하면 내일 한다는 식의 思考方式이나 다른 民族에 대한 優越感은 전술한 바와도 같이 대단하다. 「멕시코」는 貧富의 差가 심하다고 하며 低所得 層은 옥수수를 主食으로 하고 있으나 약 400명이라는 財閥級은 自家用 헬리콥터—로 美國에 가서 食事하고 1週分의 肉類를 사가지고 와서 一週日을 지내고 다음 週末에 또 헬리콥터—로 美國에 간다는 것이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는 훨씬 豪華로운 生活을 하고 있는 것이다. 貧農家를 위하여 6年마다 土地改革을 하고 있으나 實効를 걸우지 못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物價는 싸서 筆者도 學會期間中 都市 中心地의 조고만 호텔에서 宿食을 하였으나 호텔 宿泊費는 1日 6~7弗 정도이었다. 또 「멕시코」에는 貧寒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으나 觀光客으로서 盜難을 당한 사람은 아직 이야기들 들지 못 하였다는 것이 公館職員들의 말이었다. 「멕시코」의 人口增加率은 3.6%이며 「멕시코」市는 5%라고 하니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편이다.

「멕시코」에는 이상 기술한 것 이외에도 觀光地로 「소치미루코」라고 하여 人工的인 小運河인데 木造船을 타고 다니며 꽃, 食事 등 장사들도 배로 다니는 독특한 놀이터도 있으며 市內에도 規模가 큰 公園도 적지 않다. 「멕시코」市外에도 많은 觀光地가 있는데 「아카폴코」는 그 중의 하나로서 世界的으로 이름난 곳이다.

이 이외에도 우리가 본받을 것 또 他山之石으로 教訓삼을 것들이 대단히 많으나 특히 觀光事業에도 힘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많은 參考가 될 것으로 믿는다.

생활속에 과학심어

조국번영 꽃피우자